

#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8기 4차 전원회의 보도문 분석: 경제분야

임수호 (국가안보전략연구원)

## 1. 작년 평가 및 내년 계획

□ 2021년 평가와 관련해서는 농업 및 건설 부문의 경우, 대체로 성공적이었던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, 중화학공업을 비롯한 나머지 분야의 경우, 노력은 했지만 ‘계획 달성’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식의 평가를 하고 있음

- 농업: “당이 제일 중시하는 농업부문에서 평가할 수 있는 성과, 자신심을 가지게 하는 뚜렷한 진일보가 이룩되었다.”

\* 작년 對중국 요소비료 수입이 감소했으나, 자연재해가 없어 2019년 수준의 풍작이 달성된 사실을 반영

- 건설: “계획하였던 방대한 대건설과제들을 박력있게 추진하여, 우리식 사회주의의 약동하는 발전성과 저력을 크게 과시”

\* 평양 1만세대 ‘기본적으로 결속’(마감재 공사는 안됐다는 의미), 삼지연 3단계 공사가 마무리(재작년에 마감됐어야 할 것), 검덕지구 등 함경도 홍수피해 살림집 건설 ‘성과적 진척’, ‘원만히 진행’(아직 미완)

- 기타: “전력, 석탄공업부문이 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경제전반을 활기차게 견인하고, 건재공업부문과 기계, 채취, 임업, 육해운, 철도운수부문에서 국가적 건설과 생산적 양양을 뒷받침한 것을 비롯하여 올해 계획수행에서 진일보의 개선과 실적이 이루어졌다.”

\* ‘계획 달성’이라는 표현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계획에 미달했을 가능성이 높음

- 종합적으로 보면, 북한은 올해 8차 당대회 및 전원회의에서 경제난을 반영, 계획을 현실성 있게 하향조정했으나, 농업 및 건설을 제외하고는 계획에 미달한 것으로 평가가 가능

참조: 북한 산업별 성장률 추이

	2016	2017	2018	2019	2020
농림어업	2.5	-1.3	-1.8	1.4	-7.6
광공업	6.2	-8.5	-12.3	-0.9	-5.9
광업	8.4	-11.0	-17.8	-0.7	-9.6
제조업	4.8	-6.9	-9.1	-1.1	-3.8
경공업	1.1	0.1	-2.6	-1.0	-7.5
중화학공업	6.7	-10.4	-12.4	-2.3	-1.6
전기가스수도업	22.3	-2.9	5.7	-4.2	1.6
건설업	1.2	-4.4	-4.4	2.9	1.3
서비스업	0.6	0.5	0.9	0.9	-4.0
정부	0.6	0.8	0.8	0.5	0.8
기타	0.5	-0.3	1.2	1.8	-18.0
국내총생산 (GDP)	3.9	-3.5	-4.1	0.4	-4.5

자료: 한국은행

□ 2021년 중화학공업 등 기간산업이 계획에 미달함에 따라, 내년 경제계획과 관련해서도 작년과 동일한 기조를 반복하고 있음. ('5개년 계획 수행의 담보 구축', '현행 생산 활성화', '정비보강사업 힘있게 추진' 등) 전반적으로 현행생산을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두면서, 금속/화학/전력의 경우 이와 동시에 투자확대도 강조하고 있는데, 이 역시 작년과 같은 기조

- 금속: 철강재를 계획대로 생산하고(현행생산 활성화), 능력확장 및 현대화(투자확대) 동시추진
- 화학: 중요 화학공장 활성화(현행생산 활성화), 화학공업의 새 부문구조를 갖추기 위한 대상공사(투자확대) 추진
- 전력: 전력생산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전력손실 축소(현행생산 활성화 및 효율화), 새로운 동력기지 건설(투자확대)
- 기타 기간산업: 석탄생산 장성(현행생산 활성화), 철도운수 수송사업 단계적 발전(효율적 운행), 기계공업 타부문 수요충족 및 질제고 (현행생산 활성화)

- 농업 및 건설: 의식주 개변 (쌀 및 밀 중심 농업 생산구조 전환, 건설혁명 지속, 인민소비품 활성화 및 식료가공기술 향상)

## 2. 중장기 농업·농촌 개조 관련

□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‘사회주의농촌문제 해결’이 별도 의정으로 다뤄졌고, 공개된 보도문의 절반가량이 이와 관련되어 있을 정도로 강조되고 있음

- “오늘 농촌을 혁명적으로 개변시키는 것은 엄혹한 난국을 주체적 힘의 강화국면으로 반전시키고, 국가의 부흥발전과 인민의 복리증진을 이룩해나가는데서 중차대한 혁명과업”
- 농촌의 혁명적 개변을 위한 3대 과제로 “농업근로자 사상의식수준 제고 (→ “모든 농업근로자를 혁명적 농업근로자로 개조”), 농업생산력 비약적 발전(→ “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”), 농촌생활환경 근본적 개변”을 제시
  - \* 혁명적 근로자로 개조하는 것과 관련하여 “농업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우는 것,” “지식형 근로자로 만드는 것” 언급
  - \* 농업생산력 발전과 관련하여, 알곡생산구조를 벼와 밀 중심으로 바꾸는 것, 콩 농사/감자농사열풍을 일으키는 것, 과학적 영농, 토지개량사업, 농업투자 증진 및 자재보장, 생활용품 보장, ‘우리식농업지도체계’의 우월성 발양 등을 제시 (협동농장 국가대부금 면제 특별조치)
  - \* 농촌생활환경 개변 관련: 국가의 건설자재 보장 하에서 시, 군 중심 농촌건설 제시 (삼지연시 모범)

□ 농촌개조사업 강조와 관련하여 두 가지 해석이 가능

- 생산력 증대를 중심으로 보는 경우, 경제위기 국면에서 장기적 자력갱생을 위해서는 결국 식량문제가 안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발로라는 해석
  - \* 정치적으로 보면 식량증대는 ‘인민대중 제일주의’의 연장선상에 있으며, 식량증산 및 농촌 살림집 건설은 김정은의 업적 리더십과도 연결

- 생산관계 개조를 중심으로 보는 경우, 경제위기 국면에서 농업잉여를 수탈하기 위한 장치일 수 있다는 해석
  - \* 작년 당규약 개정에서 공산주의 건설이 재등장한 가운데, 공산주의 건설의 핵심 과제가 협동농장의 국영농장화 (몇 년간 사라졌던 ‘우리식농업지도체계’ 용어가 재등장)
  - \* 자재보장, 생활용품 보장 등은 도농 부등가교환 장치일 수 있음. 이 경우 식량 수매량이 늘어나면서 농민의 자율적 공간은 더욱 축소
- 현재로서는 북한 당국이 어디에 방점을 두고 있는지는 알기 어려우나, 투자재원이 말라가는 상황에서 농업잉여 수탈은 뿌리치기 힘든 유혹일 수 있음. 다만, 이 경우 장기적인 농업생산성은 더욱 하락

### 3. 예산심의 관련

-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이례적으로 당 중앙위원회가 ‘국가예산심의조’를 조직하여 2021년 예산집행정형과 2022년 예산안을 분석하고 이를 당 중앙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한 후 내년 최고인민회의에 제출하는 형식을 밟았음
  - 기존에는 당 중앙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한 경우가 없으며, 다만 당 정치국에서 형식적으로 예산을 검토하여 최고인민회의에 제출하면 최고인민회의에서 최종심의하는 구조였음
  - 사회주의 예산시스템에서 예산은 국가계획에 따라 국정가격으로 자연스럽게 계산되는 것이어서 당 중앙위원회에서 따로 심의할 필요가 없었음
  - 그렇다면 이번 당 중앙위원회의 예산심의는 북한 예산시스템과 나아가 경제운영시스템에 큰 변화가 있음을 방증하는 것일 수 있음
- 북한은 8차 당대회를 전후한 시점부터, 국가의 통일적 경제운영, 내각의 실질적 경제사령탑화,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‘개선’을 주장해왔는데, 이와 관련이 있을 수 있음

- 북한은 2020년부터 제재 및 코로나 등으로 자재부족이 심각해지자, 현물의 경우 중앙집중적 통제를 강화하면서, 재정, 금융 등 경제적 공간은 활용하는 방향으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개선을 시도
- 국가재정, 예산, 기업원가 계산에서 기존의 국정가격 시스템이 아니라 시장가격이나 이에 준하는 가격을 적용하는 경우,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음
- 최근 탈-달러라이제이션이 발생하고 원화가치가 상승한 것도 이러한 재정 운용을 가능케 한 부분
- 내각이 특권경제의 장애를 물리치고 실질적 경제사령탑 역할을 위해서는 당에서 계획과 예산을 주관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있었을 가능성

#### 4. 방역 및 무역 관련

- 작년 하반기 방역완화 조짐이 있었으나, 이번 전원회의 보도문에서는 다소 유보적 입장을 표명
  - 2021년 9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은 사실상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을 예고
  - 하지만 그 직후 오미크론 사태가 터지고 중국 내 코로나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다시 방역태세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
  -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방역을 제1의 국가아젠다로 확인하면서도, ‘과학적’, ‘인민적’ 방역을 주장하여, 두 가지 사이에서 다소 애매한 표현을 사용
- 방역 완화 및 무역 재개 자체는 불가피한 추세이나 국경개방 속도는 매우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듯
  - 취약한 방역시스템을 고려할 때, 일단 코로나가 발생하면 견잡을 수 없고, 이는 다시 중국으로 재유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

□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무역재개는 산업과 시장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

- 산업의 경우, 국경봉쇄로 조달이 어려웠던 부품, 중간재 등 밀수가 다소 늘면서 산업난 완화에 기여
- 무역은 수입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인 바, 외화난을 감안할 때 환율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, 이는 수입물가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

#### 북한 무역추이

단위: 억 달러

	2016	2017	2018	2019	2020
수출	28.2	17.7	2.4	2.8	0.9
수입	37.1	37.8	26.0	29.7	7.7
총액	65.3	55.5	28.4	32.5	8.6
수지	- 8.9	- 20.1	- 23.6	- 26.9	- 6.8

자료: 한국무역협회

주: 2021년의 경우, 10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수입 61%, 수출 21% 감소.

총교역규모 57.4% 감소